

# 第二十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一、日時 檀紀四二八八年二月二十一日(月) 上午十時

二、場所 民議院議事堂

三、開會式節次

가、開式

나、國旗에對하여 敬禮

다、愛國歌奉唱

라、式辭

마、致辭

바、萬歲三唱

사、閉式

(司會 徐商俊議事局長)

(上午十時開式)

○議事局長(徐商俊) 지금부터 第二十回定期國會

開會式을 舉行합니다

國旗에 對해서 敬禮가 있겠습니다

(國旗에 對하여 敬禮)

다음은 愛國歌奉唱이 있겠습니다

(愛國歌奉唱)

다음은 議長閣下의 式辭가 있겠습니다

○議長(李起鵬)

式辭

內外貴賓 여러분 議員同志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民議院은 第二十回定期國會를 開

會합니다

公私多忙하셔도 不拘하시고 親히 여기까지나

와주시어 이開會式을 爲나서하여 주심 幸甚이라

분개 깊이 感謝를 드리는 한편 議員同志여러 분께서도 健康하신 모습으로 다시 이자리에서 나와주시어 眞心으로 고답고 기쁜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할것도 없이 이번國會는 四二八八年度豫算案을 비롯하여 許多한 重要案件이 우리들의 審議를 기다리고 있을뿐 아니라 새로 提起된案件도 저지아니할줄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當하여 우리는 過去를 回想하고 將來를 展望함에 있어서 우리國會의 使命은 더욱 크고 또 무거운을 느끼는 바입니다

더구나 最近의 國際情勢는 蘇聯政變에 依한 共產侵略魔手의 動向이 極히 注目될뿐 아니라 臺灣海域의 緊張狀態가 如前한것等 暫時的 安堵를 許하지않는 現實에處하여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國內體制를 더욱 強化하여 結束을 근제하면서 우리의 念願인 統一과 再建을 하로파비 成就시킴에 全力할 段階에있는것입니다 勿論 우리는 우리가 첫번으로 가졌던 第十九回臨時國會에 있어서 與野가 힘을 모아 가지가지의 巧績을 남겼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國會의業績中에 있어서 겨우 一部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더 큰 飛躍과發展을爲하여 過去에 勇을인 巧績을 더욱 擴大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찌때를 勿論하루 「拾遺의遺長」이라는 우리自身들의 義務을 一장

지하면서 우리國會의 높은 權威를 더욱 빛나게

하는에 있다고 믿는바입니다 與野가 서로協助하여 國政審議에 있어서 國民의附託을 어겼던 이 反映시키기에 充實할것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우리들自身的 榮譽과 우리國會의 權威를 잃지 않는것이될것입니다 設使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고비에 다치더라도 우리國民의 모든 智력과 努力이 우리를議員에依하여 反映되고 具現될때 우리앞에는 恒常 民主主義의 勝利를 높

이 謳歌할수있을것으로 믿으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祖國과 民族을 光明을 이끄러갈수 있는 길이될것입니다

結論的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우리議員의 榮譽과 우리國會의 權威를 드높이 빛내는 길만이 우리가 負荷한 重責을 다할수있는 길임을 거듭自覺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政治行動에 있어서 우리의 審議態度에있어서 우리는 이榮譽과 이權威를 한時라도 忘却하거나 損傷시킬이 있어서서는 斷될줄 압니다

이러할때에 우리는國民이 願하는바에 忠實할수 있고 國家가願하는바에 忠誠할수있을것입니다 이번 定期國會의 會期는 앞으로 四個月餘에 걸 쳐있습니다 現在議員中인 副議長選舉 各分科委員長의 改選및 新年度豫算案 모든 案件處理에 있어서 우리는 以上 말씀한바에 留意하여 우리

의 義務를 盡善함이 完遂하기를 期할것으로부

○議事局長(徐商俊) 다음은 大統領閣下の 致辭  
가 있었읍니다 下長官께서 代讀하시겠읍니다

民議院議長 李 起 鵬

○外務部長官(下榮泰) (代讀)  
우리 國會 第二十回 定期國會의 開會式에 내  
가 親히 參席하고저 하였으나 不如意하여 이  
簡單한 式辭로 代身 祝賀하는 바입니다

致 辭

이때는 共產陣營과 民主陣營이 雙方으로 갈려  
서 世界가 對立하여 있는中 歐羅巴의 모른 나  
라들은 西獨 한구름이外에는 다 共產과 合作  
도하며 또 共產勢力에 끌려다니기도하고 甚  
至於 어떤나라들은 共產統制를 받어서 衛星國  
家가 되어 獨立이나 自由는 느낌밖에도 내지 못  
하고 服從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中에 끼  
어서 獨逸과같이 政局이 두쪽에 나누어져 있  
어서 우리는 敵을 밀어내고 우리가 統一하기  
를主張하고 있으며 共產軍은 우리를 다 밀어  
바다에 집어 넣고 저희가 統一하려고 對立하  
고 있는 中인데 所謂 民主陣營의 自由國家들의  
일마가 날마다 그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어찌  
할줄모르고 지나고 있으며 또 方便으로는 歐羅  
巴와 亞細亞의 反共하는 나라와 사람들은 도  
아서 自由國家들의 安全을 保護해야만 全世界  
가 다 共產의 征服을 免하고 自由國權과 自

由民權을 保存해서 永遠한 征服을 免한다는 주  
義로 紛爭 分裂이 甚한 中에 있어서 우리가 아  
직 統一을 못하고 있는 中이니 우리의 危急한  
形便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世界에 앉아서 戰線의 앞재비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主義가 된것을 우리가 또한 覺悟를 해  
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本來 微弱하던 形勢로 이와같이 強硬  
한 主義를 占領하게 된것은 우리國軍將兵이 나  
라를 爲해서 勇을 貢獻하기를 榮光으로 여  
기며 또 이 民族이다 躊躇하지 않고 한 길을  
밟아서 精神과 行動을 모아서 우리가 統一할  
때까지는 죽으나 사나 다같이 하자는 그決心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러한 強한 자리에 이르렀  
고 남들이 다 稱讚하는 中이니 이때로만 우  
리가 繼續해서 나가 싸운다면 우리는 우리 目  
的을 達하기를 念慮할 것이 아닙니다  
이中에 處해서 國會議員여러분들은 各各 政黨  
關係도 있고 또 主義主張의 差異도 있을수 없지  
만 우리가 다같이 먼저 생각할것은 政黨보담  
나라가 더 크며 나個人보담 政黨이 더 크다  
는것을 생각해서 나라가 없고는 政黨이 있을  
수 없고 政黨이 없이는 政治上意圖를 發表할 힘  
이 不足한 까닭으로 우리는 먼저 國家를 保  
護해서 國權이 鞏固하여 國民의 福利를 增進해  
서 해야 한다는것을 目的으로 삼아 政黨이나 個  
人의 政見만가지고 鬭爭이나 紛爭을 임하지 말  
고 國家에 對한問題는 合同해서 解決해나가고 우  
리의 形勢나 或 不足한點이 있더라도 서로 가  
리우며 保護해서 우리원수와 싸울길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서로 힘을 찾으며 서로 물고 들이  
서 國家를 危殆롭게 하며 公益을 害하게 하므로  
우리나라形勢를 의롭고 危殆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한집안에 살면서 그집에 불을 놓고  
破壞하는 것과 같이 되니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前보다 더努力해서 나라를 먼저 살피고 그  
少한일을 나중에 措處하자는 그런 愛族誠心으  
로 힘을 쓰시면 그公心을 民衆이 저절로 알  
게 되어 民衆이 支持할만한 政黨이 되어야 그  
政黨이 勢力이 있지 무슨 일을 하든지 民間  
에서 贊成 못할일을 하면서 勢力만으로 政權을  
잡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勤勉하는 말을 마치 내가 혼  
자 잘한다고 하는것으로 認定받으려는 것이 아  
니고 이混亂한 世界에서 危急한 形便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全民族이 合心하므로 世界의  
前線에서 끝까지 成功하는것을 우리가 다後  
援하며 合同해서 우리 全民族의 目的을 到達  
하도록 같이 勤勉하여 한길로 나가기를 바  
라는 바입니다  
大統領 李 承 晚  
○議事局長(徐商俊) 다음은 萬歲三唱이 있었읍  
니다 議長閣下께서 先唱 하시겠읍니다  
(先唱)  
(議長 先唱으로 萬歲三唱)  
○議事局長(徐商俊) 以上으로써 第二十回定期國  
會開會式을 끝마치겠읍니다  
(上午十時二十七分閉式)  
(大東堂納)